“자승 대종사 대학생 전법 유지 계승”

(사)상월결사 이사회, 의지 천명
이사장 직무대행 원명 스님 선임
정관 변경…사무총장 직제 신설
사무총장 서리에 일감 스님 임명
내년 예산 수정 승인, 계획 확정
이사스님들 “동아리 지원 신속히”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상월결사는 12월 12일 서울 강남 봉은사 구생원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원적으로 유고된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상임이사 원명 스님을 선임했다. 사진은 원명 스님이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상월결사가 지난달 29일 원적에 든 회주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유지인 ‘부처님 법 전합시다’를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다.

(사)상월결사는 12월 12일 서울 봉은사 구생원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 직무대행 선출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사회는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유지를 계승해 대학생 전법 불사 등의 사업들을 차질 없이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자리였다.

자승 대종사의 영정에 삼배를 올리고, 추모 입정으로 시작한 (사)상월결사 이사회는 이사장 궐위 시 최연장자가 임시의장을 맡는다는 정관에 따라 지현 스님을 임시의장으로 선임했다. 이후 이사회는 직무대행으로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임했으며, 이사장 선출은 자승 대종사 49재 이후 진행키로 했다.

원명 스님은 “대종사께서 남기신 ‘부처님 법 전합시다’ 유지를 차질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봉을 전달받은 원명 스님은 △정관 변경 △2024년 사업계획 승인 △2024년 예산안 승인 등의 안건을 상정하고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사)상월결사 이사회는 7인 이상 15인 이하에서 19인 이하로 이사 정수를 확대하고,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을 승인했다. 이후 이사회는 사무총장 서리에 일감 스님(조계종 前기획실장)을 임명했으며, 향후 이사회에서 사무총장 임명 동의를 안건으로 상정해 정식 임명키로 했다.

일감 스님은 “자승 대종사의 유지와 이사스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 대학생 전법 불사가 원만하게 성취될 수 있도록 소임을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상월결사 이사회는 2024년도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115억5292만원을 증액 · 가결했다. 이에 따라 상월결사는 △교구별 신규 동아리 설립 △기존 대불련 소속 불교동아리 활성화 △대학생 불교 음악 축제 △전국 대학생 불자대회(대학생 영 캠프) △상월결사 불자배가운동 ‘새 인연 맺기’ 프로젝트 의미 강화 △사회 영향력 있는 지도층 인사의 발굴 강화 △상월불교포럼 설립 등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처음으로 개최되는 ‘상월결사 대학생 영 캠프’는 2000여 대학생 불자들이 한자리에서 모이는 역대 규모 신행축제가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대학생 불자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행사라는 데 의미가 있다. 지난달 11일 열린 사부대중 전법대회에서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상월결사는 대학생 불자들을 중심으로 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행사 전반을 직접 구성 ·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사스님들은 대학생 전법 지원에 대한 빠르고 공명정대한 집행이 이뤄져야함을 강조했다.

돈관 스님(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은 “사부대중 전법대회로 모연된 기금은 한국불교 대중이 대학생 전법 활성화를 위해 모아준 것”이라며 “대학생 불교동아리 지원에 대해 어떤 대학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 빠른 시간 내에 답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호산 스님(봉선사 주지)은 “현재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불교동아리부터 지원하고 그 효과들을 홍보해야 동력이 떨어지지 않는다. 불교동아리 지원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실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덕문 스님(화엄사 주지)은 “어느 해보다 2024년 사업들이 중요하다. 어느 대학에 어떻게 지원했는지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사회에는 이사장 직무대행 원명 스님(봉은사 주지),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 중앙종회의원 삼조 스님, 前 조계사 주지 지현스님,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 상원사 주지 해량 스님, 정충래 前 동국대 이사, 최진식 동국대 이사, 박기련 동국대 건학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새해맞이 ‘소원의 탑’ 세운 조계사 매년 새해를 앞두고 ‘소원의 탑’을 밝혀 조계사를 찾는 모든 이의 소망 성취를 기원해온 조계사가 갑진년 청룡의 해에 앞서 올해도 소원의 탑을 세웠다. 12월 13일 진행된 소원의 탑 오픈 기념식에서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과 신도들이 소원지를 달고 있다. 윤호섭 기자

“이 시대 전법 주체로서 자긍심 갖자”

대불청, 제41차 전국불교청년대회…선업 스님 특별법문

‘더 큰 내일로 다시 새롭게’ 주제로
전국 각 지구서 회원 200명 동참



1920년 만해 한용운 스님이 창립한 이래 청년불자들이 모여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한불교청년회가 청년포교 확대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대한불교청년회(중앙회장 장정화, 이하 대불청)는 12월 9~10일 충남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창립 103주년 기념 제41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개최했다. ‘더 큰 내일로 다시 새롭게’라는 주제로 열린 대회는 대불청 수석부총재인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 스님〈사진〉을 비롯해 지도법사 정범 · 각운 · 대혜 스님과 전국 각 지구 회원 등 200여 명이 동참했다.

첫날 저녁 대불청 회기와 대회기, 지구회기를 앞세워 연수원 다목적홀에 집결한 회원들은 헌장전문과 강령을 외치며 만해 스님이 강조한 불교청년들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되새겼다.

민경순 불청대회조직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대회는 불교의 지혜로 더욱 성장하고 서로에게 영감을 주며 미래에 책임감 있는 불교 지도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면서 “선후배 간 소통과 협력으로 대불청의 새로운 백년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한다”고 말했다.

장정화 중앙회장은 “청년포교는 불교의 가르침을 청년에게 다가가게끔 전달하고, 그들이 현대사회에서 지혜롭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대불청은 청년포교와 함께해 불교의 미래를 더 밝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러분도 이 발걸음에 참여해 불교문화를 더욱 빛나게 하는 데 기여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대회사를 전했다.

이어 특별법문에 나선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청년불자들이 이 시대 전법의 주체로서 자긍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초기 전법사를 보면 피눈물보다 더한 역경을 딛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려 한 노력을 알 수 있다. 그 영향으로 여러분이 불법을 만나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할 수 있는 것”이라며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 이익되게 할 때 진정한 전법이 이뤄진다.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으로 전법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대회 모범 불청인 시상식에서는 최고상인 불청대상 수상자가 없었다. 자랑스러운 불청선배상에는 정권화 중앙자문단장이 선정됐으며, 최우수지구에 대구지구, 최우수지회에 울산경남지구 대우지회, 우수지구에 경기지구, 우수지회에 대구지구 유가사청년회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김성진 · 번영희 · 나경균 회원 등이 특별표창을 수상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청년불자 결의문을 통해 1920년 ‘불교를 통한 민족의 각성, 조국 광복과 독립을 이루자’는 기치 아래 창립된 조선불교청년회의 정신을 잇는 한편, 불교대중화 사업에 진력해 미래 청년포교 시대를 열어갈 것을 다짐했다.

충남 공주=윤호섭 기자

월정사 주지후보 정념 스님 선출

12월 12일 산중총회서…
임기 1월 29일부터 4년간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후보에 현 주지인 정념 스님이 선출됐다. 이에 따라 정념 스님은 2004년 첫 주지 소임을 맡은 이래 6번째 연임을 기록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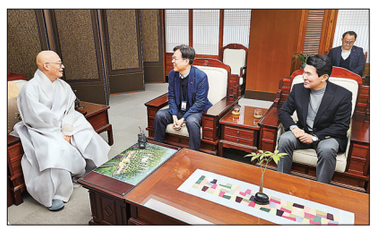
조계종 제4교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적천)는 12월 12일 월정사 대법륜전에서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열고, 구성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독 입후보한 정념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앞서 정념 스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격심사를 통과하며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다. 새 임기는 내년 1월 29일부터 4년간이다.

윤호섭 기자

이관섭 실장, 대통령실 불자회장 내정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예방



지난 4일 임명된 이관섭 대통령실 신임 정책실장이 대통령실 불자회장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2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이관섭 실장과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예방을 받고, 대통령실 불자회장에 내정된 이 실장에게 고마움을 표했다.〈사진〉

1996년 박세일 당시 사회복지수석을 보좌했다고 밝힌 이 실장은 “박세일 수석께서 청와대불자회를 만들 때 저도 계와 법명을 받았다”며 “그분의 뒤를 잇게 될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영광이다”고 말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어려운 자리인 불자회장을 맡아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후 예방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종교 편향적 정부 인사 논란을 해소하는 대화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예방 이후 기자들과 만난 이 실장은 “대통령께서는 종교 편향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고 다만 (불교계와) 소통이 잘 안 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열심히 노력해서 더 이상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어 대통령실 불자회장을 맡게 된 데 “대단히 영광스럽고 뿌듯하다. 대통령실과 불교계 소통에 나서서 불교가 번영하고 나라가 편안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KBS 기독신우회 출신으로 종교 편향 논란의 중심에 섰던 황상무 수석도 해명했다. 황 수석은 “어느 예배에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마치 제가 한 것처럼 일부 보도된 게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며 “2001년 사회부 기자 시절 백양사와 운문사를 취재해 보도한 적도 있을 정도로 불교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황 수석은 “(종교 화합을 위해) 자주 찾아서 말씀을 많이 듣겠다”고 덧붙였다.

예방에는 조계종 총무부장 성화 스님과 기획실장 우봉 스님, 사서실장 진경 스님, 대통령실 불자회 사무총장을 맡은 이강래 시민사회수석실 선임행정관이 참석했다. 한편 이관섭 정책실장의 대통령실 불자회장 취임법회는 내년 1월 18일로 예정됐다.

윤호섭 기자

